

[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나머티리얼즈(166090), 2018년 실적 발표... 역대 최대 매출 경신]

2018년 매출액 1,756억 원, 영업이익 490억 원... 전년비 71%, 108% ↑

- ▶ 반도체 미세화 · 고집적화로 식각용 소모품 수요 급증... 하나머티리얼즈 실적 성장으로 직결
- ▶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한 CAPA 확대, 신규 SiC Parts 사업 본격화로 지속성장 자신
- ▶ 1주당 250원, 현금배당 실시... 주주환원 정책 지속...주주와의 동반성장 실천

<2019-02-01> 하나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식각용 소모품 수요 급증에 따른 사업 호조로 가파른 실적 성장을 이어갔다.

반도체 부품·소재 전문기업 하나머티리얼즈(166090, 대표이사 오경석)는 1일 공시를 통해 2018년 온기 매출액 1,755억 6,100만 원으로 전년비 71% 상승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89억 5,800만 원, 347억 4,2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8%, 78.6%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1주당 250원의 현금배당도 실시해 성장의 결실을 주주와 나눠 주주와의 동반성장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번 호실적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반도체가 미세화 · 고집적화 됨에 따라 웨이퍼 ‘식각’에 쓰이는 실리콘 부품(Si-Parts)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이는 자사의 매출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며 “최근 주주 증가 추세에 발맞춰 생산 시설을 확충한 바 있고, 수익성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잉곳 생산력 강화, SiC Parts 사업 진출 등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어 실적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실제로 하나머티리얼즈는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 타이틀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용 소모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Si-Parts 시장점유율 압도적 1위 기업으로서 수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신규 생산라인 도입 및 아산사업장 준공을 완료해 Si-Parts 생산량 확대 및 생산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 성장동력인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SiC Parts) 생산을 본격화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하나머티리얼즈 오경석 대표이사는 “반도체 공정용 소모품 시장의 성장은 독보적인 잉곳 그로잉 기술력과 소재 생산부터 부품 가공까지 아우르는 일관생산체제를 보유한 하나머티리얼즈의 구조적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작년 한 해 대구경 잉곳 생산 전용라인 도입, SiC Parts 생산을 위

한 아산사업장 준공 등을 통해 생산 기반을 다졌고,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객사 다변화, 제품다변화 등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엔진을 장착해 고속 성장을 거듭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하나머티리얼즈는 대구경 실리콘 잉곳 일관생산체제를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실리콘 부품 (Si Parts)부문 M/S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고사양 반도체 수요 증가로 공정 내 소모품 사용이 늘고 반도체 부품 수요 급증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반도체 업계 내 기존 설비용 물량뿐만 아니라 교체 및 신규추가 설비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모품 수요도 급증해 사상최대 실적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하나머티리얼즈 2018년 실적>

단위 : 백만 원

	2017	2018	YoY
매출액	102,914	175,561	70.6%
영업이익	23,539	48,958	108.0%
당기순이익	19,448	34,742	78.6%

▣ 자료문의 : 하나머티리얼즈 정형재 차장 (041-410-1255)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2-6011-2000 #120)/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